

2020년 10월 29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코로나로 인한 유럽의 경제 봉쇄로 급락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12월 1일까지 전국적인 봉쇄” 단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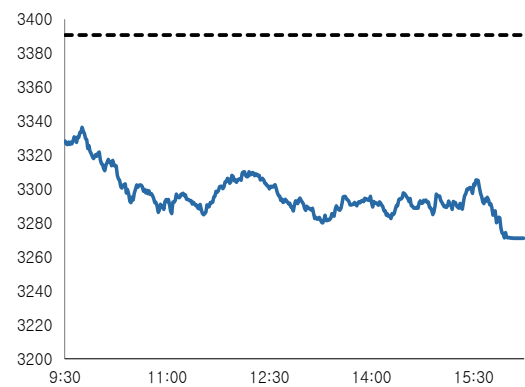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①코로나 사태 ②MS 실적 발표

미 증시는 경제 봉쇄에 따른 경기 회복 우려 속 유럽 증시가 2~4% 급락하자 하락 출발. 특히 프랑스와 독일이 견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는 코로나 사태로 경제 봉쇄를 확대 발표하자 공포 심리가 더욱 높아짐. 한편, 전일 장 마감 후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MS(-5.06%)가 급락하자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낙폭이 확대된 점도 영향(다우 -3.43%, 나스닥 -3.73%, S&P500 -3.53%, 러셀 2000 -2.97%)

미 증시는 ①코로나 사태 ②MS(-5.06%) 실적 발표 영향으로 하락. 먼저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 특히 유럽의 경우는 통제력을 잃고 견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자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이 대 국민 담화를 통해 전국적인 경제 봉쇄를 단행. 여기에 독일도 11월 주요 여가 시설 봉쇄를 단행. 이는 유럽 지역 경기 회복 지연 우려를 높이며 공포 심리 확산. 미국도 7일 평균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71,832건을 기록하며 지난 주 대비 약 21% 증가하는 등 속도가 빨라짐. 특히 미국의 이러한 추세는 유럽지역 재 확산 초기에 해당하며 이번 주 주말에는 하루 9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점도 공포 심리 확산 요인. 이는 미 대선 결과 누가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기 부양책을 단행하기 전 코로나 통제 위해 경제 봉쇄는 불가피해질 수 있음을 보여줌

한편, MS(-5.06%)가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발표 했음에도 불구하고 급락. 이익 성장률이 다소 둔화 될 것이라는 가이던스 발표에 따른 것으로 추정. 특히 FANG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이 올해의 성과를 뒤로하고 내년부터는 다소 둔화될 것이라는 점을 자극해 대형 기술주들의 하락을 부추김. 여기에 검색 및 광고 관련 이익이 전년 대비 10% 감소 했는데 구글의 검색 이익과 상관관계가 강하다는 점을 들어 이번 주 후반에 실적 발표하는 알파벳(-5.51%)과 페이스북(-5.51%)의 하락폭을 더욱 확대. 더불어 실적에 대한 눈 높이가 높아져 있는 대형 기술주가 예상보다 대규모 실적 개선이 나오지 않으면 차익 매물 출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부담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345.26	+0.62	홍콩항셱	24,708.80	-0.32
KOSDAQ	806.20	+2.87	영국	5,582.80	-2.55
DOW	26,519.95	-3.43	독일	11,560.51	-4.17
NASDAQ	11,004.87	-3.73	프랑스	4,571.12	-3.37
S&P 500	3,271.03	-3.53	스페인	6,474.40	-2.66
상하이종합	3,269.24	+0.46	그리스	595.16	-0.14
일본	23,418.51	-0.29	이탈리아	17,897.79	-4.0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대형 기술주 급락

MS(-5.06%)가 양호한 실적을 발표 했음에도 향후 전망에 대해 조심스럽게 발표하자 하락했다. 특히 검색 및 광고 수익이 전년 대비 10% 감소한 점은 알파벳(-5.51%), 페이스북(-5.51%), 트위터(-5.29%) 등의 하락을 더욱 부추겼다. 지난 분기 MS의 검색 및 광고 수익이 18% 감소 했을 때 알파벳은 10% 감소 했을 정도로 상관 관계가 강하기 때문이다. 이날 MS CEO는 다음 분기 검색 및 광고 수익에 대해 7~9%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해 관련 기업들의 하락을 자극했다. 더불어 예상보다 대규모 개선이 되지 않으면 차익 욕구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아마존(-3.76%)과 애플(-4.63%)은 물론 세일즈포스(-4.74%)등 소프트웨어 회사를 비롯해페이팔(-4.05%)과 테슬라(-4.39%) 등 그동안 상승이 컸던 종목들의 부진을 야기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델타항공(-3.45%)과 부킹닷컴(-5.46%) 등 여행주, TJX(-5.14%) 등 소매 유통업종도 하락했다. 다만,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퍼스트솔라(+13.25%)가 급등하자 선파워(+4.58%) 등 태양광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GE(+4.51%)도 견고한 실적 발표로 강세를 보였다. 장 마감 후 실적 발표한 서비스나우(-3.15%)와 포드(-2.78%)는 양호한 실적 발표 후 시간 외로 각각 4%, 6% 급등 중이다. 길리어드 사이언스(-2.15%)는 실적 발표 후 소폭 하락 중이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5.64%	대형 가치주 ETF(IVE)	-2.87%
에너지섹터 ETF(OIH)	-6.34%	중형 가치주 ETF(IWS)	-2.89%
소매업체 ETF(XRT)	-2.42%	소형 가치주 ETF(IWN)	-3.36%
금융섹터 ETF(XLF)	-2.56%	대형 성장주 ETF(VUG)	-3.88%
기술섹터 ETF(XLK)	-4.24%	중형 성장주 ETF(IWP)	-2.72%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2.30%	소형 성장주 ETF(IWO)	-2.87%
인터넷업체 ETF(FDN)	-3.62%	배당주 ETF(DVY)	-3.13%
리츠업체 ETF(XLRE)	-2.22%	신흥국 고배당 ETF(DEM)	-2.76%
주택건설업체 ETF(XHB)	-1.42%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1.42%
바이오섹터 ETF(IBB)	-2.58%	미국 국채 ETF(IEF)	-0.01%
헬스케어 ETF(XLV)	-3.17%	하이일드 ETF(JNK)	-0.84%
곡물 ETF(DBA)	-1.35%	물가연동채 ETF(TIP)	-0.13%
반도체 ETF(SMH)	-3.23%	Long/short ETF(BTAL)	+1.23%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09.69	-4.22%	-5.55%	-7.82%
소재	388.98	-2.87%	-5.41%	-2.76%
산업재	632.40	-3.31%	-6.71%	-2.81%
경기소비재	1,197.42	-3.36%	-3.30%	-0.85%
필수소비재	642.15	-2.92%	-4.45%	-2.58%
헬스케어	1,193.70	-3.23%	-3.17%	-3.03%
금융	392.34	-2.47%	-4.37%	-1.98%
IT	1,960.21	-4.33%	-6.47%	-4.59%
커뮤니케이션	192.98	-4.03%	-3.87%	-1.28%
유틸리티	319.04	-2.94%	-1.42%	+5.69%
부동산	210.22	-2.41%	-4.86%	-3.9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위축된 심리 속 개별 종목 장세

MSCI 한국 지수 ETF 는 1.51% MSCI 신흥 지수 ETF 는 2.50% 하락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35.23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과 미국 주식시장은 견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는 코로나 사태로 공포심리가 크게 높아지며 급락했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이 전국적인 경제 봉쇄를 발표 하자 경기 회복 지연 우려가 높아진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는 유럽과 미국의 4 분기 경기 위축 가능성을 높인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실제 일부 연구 기관들은 정부의 재정정책이 확대 되었음에도 코로나가 여전히 이어지며 경기 부양 노력이 실패 했고, 이는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오기 전 코로나 통제가 전제 되어야 함을 보여준 사례로 볼 수 있다. 결국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누가 대선에서 당선 된다고 해도 미국의 경제 봉쇄 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어 당분간 투자심리 위축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미국 대선에서도 정작 중요한 상원 의원 선거 결과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 양당 후보 격차가 크지 않아 결선 투표가 필요할 수 있어 1 월까지 결과가 결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정책 의제 실행 관련해 의회와 행정부 권력이 하나로 통제되지 않으면 재정정책 집행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해도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거나, 바이든이 당선된다고 해도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할 경우 미국의 2021 년 재정정책 집행 속도는 지연 될 수 있어 주식시장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변화 요인을 감안 한국 증시는 미국의 대선과 의회 선거 결과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 오늘도 위축된 투자심리 속 미 증시 특징처럼 실적 발표와 그에 따른 분석으로 종목들의 변화폭이 확대되는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유럽 기관 투자자들 적극적인 안전자산 선호

10 월 State Street Investor Confidence Index(투자자 신뢰지수)는 전월의 83.9 에서 80.1 로 하락해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안전자산의 비중이 더욱 확대 되었음을 보였다. 미국 기관투자자들은 2.0p 하락한 76.8 로 하락했다 특히 유럽 기관 투자자들은 17.4p 급락한 92.8 로 유럽 코로나 확산 영향이 기관들의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줬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시아는 84.5에서 91.7로 상승해 한국 주식시장이 견고 했던 요인 중 하나를 볼 수 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수요 둔화 및 재고 증가로 5.5% 급락

국제유가는 코로나 확산이 진행된 가운데 프랑스가 전국적인 봉쇄를 단행하는 등 각국이 하나 둘 경제 봉쇄에 돌입하자 급락했다. 이는 수요 둔화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EIA 가 지난 주 원유 재고가 시장 예상치인 80 만 배럴 감소와 달리 432 만 배럴 증가했다고 발표한 점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이러한 수요 둔화와 재고 증가 그리고 달러 강세가 오늘 국제유가 급락의 요인이었다.

달러화는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각국의 경제 봉쇄가 단행되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엔화도 달러 대비 소폭 강세를 보였다. 한편, 유로화는 프랑스와 독일이 경제 봉쇄를 확대한다고 발표하자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 속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역외 위안화를 비롯해 신흥국 환율은 경기 위축 우려 속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코로나 재 확산에 대한 우려 속 경기 위축 가능성이 높아지자 4 일 연속 하락하기도 했으나 장 마감 앞두고 상승 전환했다. 한편, 5 년물 국채 입찰에서 응찰률이 12 개월 평균(2.49 배)을 하회한 2.38 배를 기록하는 등 채권 수요가 약화된 점도 금리 상승 전환 요인 중 하나 였다.

금은 경기 위축 우려 속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확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 여파로 1.7% 하락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 및 경기 위축 우려 속 하락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26%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37.39	-5.51	-6.60	Dollar Index	93.429	+0.53	+0.88
브렌트유	39.12	-5.05	-6.25	EUR/USD	1.175	-0.39	-0.94
금	1,879.20	-1.71	-2.61	USD/JPY	104.34	-0.08	-0.24
은	23.359	-4.93	-7.46	GBP/USD	1.2988	-0.43	-1.22
알루미늄	1,809.50	-0.69	-1.84	USD/CHF	0.9103	+0.18	+0.53
전기동	6,748.00	-0.74	-3.48	AUD/USD	0.7046	-1.16	-1.00
아연	2,529.00	-0.63	-1.54	USD/CAD	1.3315	+0.99	+1.29
옥수수	401.50	-3.49	-2.96	USD/BRL	5.7586	+0.91	+2.72
밀	608.75	-1.14	-3.33	USD/CNH	6.7274	+0.18	+1.25
대두	1,054.75	-2.02	-1.56	USD/KRW	1130.60	+0.45	-0.11
커피	105.00	-1.82	+0.82	USD/KRW NDF1M	1135.23	+0.53	+0.1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0.774	+0.67	-4.83	스페인	0.175	+1.90	-2.80
한국	1.497	-1.00	-2.30	포르투갈	0.147	+1.90	-3.40
일본	0.025	-0.60	-1.00	그리스	1.047	+12.10	+13.70
독일	-0.625	-1.00	-3.70	이탈리아	0.763	+6.40	-1.8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